

2012. 7. 2 Vol. 27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한·콜롬비아 FTA 협상타결
가뭄대책비 추가 지원계획

거시경제 동향

201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2012년 보리, 봄감자, 사과,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동향 분석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농정 이슈_1

한·콜롬비아 FTA 협상타결

※ 본 자료는 6월 25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「한·콜롬비아 FTA 협상타결」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주요 농산물 양허 수준

- (우리측)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,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를 철폐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.
 - 쌀, 고추, 마늘, 사과, 감귤,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(품목비중 7.9%)은 양허 제외, 이외 720개 주요 품목(품목비중 36.9%)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 철폐
 -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, 분유 등의 일부 품목은 제한적 양허 허용
 - ※ 쇠고기(5개 세번): 뼈없는 것, 2개 세번 ⇒ 19+ASG, 꼬리, 족 등 냉동설육 3개 세번 ⇒ 19년 장기 양허
 - ※ 탈·전지분유: 5개 세번 ⇒ TRQ 100톤(증량없음,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). 콜롬비아측도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TRQ제공
 -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방 유도
 - 라면, 음료 등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중 24개에 대해 즉시철폐 확보
- (콜롬비아측) 쌀 관련 품목 등은 양허 제외(47개),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
 - 농산물 516개(농산물의 54.7%), 수산물 24개(14.5%)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

□ 기타 협상결과

- (위생 및 검역(SPS))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

○ (원산지 기준)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·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 수입 방지

-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

〈참고〉 안·콜롬비아 양국간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

<대 콜롬비아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>

단위 : 천불

구분		2007	2008	2009	2010	2011
수출(A)	합 계	221	213	85	476	1,400
	농산물	111	106	64	474	1,254
	축산물	4	0	0	0	4
	임산물	43	91	0	1	0
	수산물	63	16	21	1	142
수입(B)	합 계	36,324	47,752	56,823	74,278	121,912
	농산물	34,321	47,037	55,234	72,479	119,705
	축산물	1,910	357	1,105	1,487	1,554
	임산물	4	4	0	24	14
	수산물	89	354	484	288	639
무역수지(A-B)		-36,103	-47,539	-56,738	-73,802	-120,512

<대 콜롬비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('11)>

단위 : 천불

순위	수출		수입	
1	기타음료	716	커피	108,796
2	혼합조제식품	217	커피조제품	5,258
3	삼치	138	기타절화	1,665
4	백삼조제품	91	우황	1,553
5	물	66	사탕수수당	1,434
6	라면	34	초콜릿	689
7	기타사료용조제품	29	기타과실	557
8	감초엑기스	19	어류유지	466
9	선인장	17	팜유	373
10	기타과실	14	바나나	372

주: 기타 과실류는 페이스트 등 가공품 포함실적임.

주요 농정 이슈_2

가뭄대책비 추가 지원계획

※ 본 자료는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농식품부, 막바지 가뭄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」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그간 가뭄지원책 종합

- 경기·충남·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지역의 용수대책을 위해 관정 등 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 시행

- 총 지원비: 195억 원(3차례)

- ※ 용수원 2,656개소 개발
- ※ 양수기 등 연 13천대 장비 및 연 28천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모내기 및 마른논 등 총 68천ha(누계) 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급수를 추진하여 99.7%의 모내기 완료
- ※ 장기간 가뭄에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60개소에 대한 준설도 추진하여 가뭄 시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토록 지원

□ 가뭄대책비 추가 지원계획

- (재원계획) 총 지원규모는 687억 원(국고 400, 지방비 287)으로 '12년 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충당
- ※ '12년 불용예산 '논소득기반다양화(농특회계 구조개선계정)' 재원 이용

- (용수원 개발 추진) 긴급 용수급수 대책을 위한 관정 등 용수원 개발

- 사업내용: 관정 등 용수원개발 542개소
- 지원규모: 276억 원(국고 138, 지방비 138)

- (저수지 준설 추진) 저수율 30%이하 낮은 저수지 준설 추진

- 사업내용: 저수지준설 597개소(시군 557, 공사 40)
- 지원규모: 411억 원(국고 262, 지방비 149)

※ 본 자료는 6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「2012년 6월 소비자동향지수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소비자심리지수

-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**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중 101로 전월대비 4p 하락**

<구성지수의 기여도>

구분	11.10월	11월	12월	12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소비자심리지수1)	100	103	99	98	100	101	104	105	101
(전기 대비 지수차)2)	0.8	2.7	△3.4	△1.1	2.5	0.2	3.2	1.2	△4.3
구 성 지수 의 기여도 (p)	현재생활형편	0.5	0.2	△0.3	△0.3	0.5	△0.3	0.5	△0.4
	생활형편전망	0.2	0.6	△0.7	△0.2	0.7	0.0	0.4	△0.7
	가계수입전망	0.0	0.5	△0.8	0.0	0.3	0.2	0.0	△1.1
	소비지출전망	0.0	0.2	△0.5	△0.2	0.5	0.0	△0.2	△0.7
	현재경기판단	0.1	0.6	△0.5	△0.2	0.2	0.1	0.5	△0.5
	향후경기전망	0.0	0.6	△0.6	△0.2	0.3	0.2	0.2	△0.9

주 1)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
2)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

□ 가계의 소비심리

- **현재생활형편CSI1)와 생활형편CSI는 전월대비 각각 2p, 4p 하락**
- **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4p, 3p 하락**

<생활형편,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>

구분	11.10월	11월	12월	12.1월	2월	3월	4월	5월(A)	6월(B)	(B-A)
현재생활형편CSI	86	87	85	83	86	84	87	90	88	(△2)
생활형편전망CSI	92	95	91	90	94	94	97	99	95	(△4)
가계수입전망CSI	96	98	95	95	96	97	99	99	95	(△4)
소비지출전망CSI	108	109	107	106	108	108	110	109	106	(△3)

1) 소비자태도지수(CSI: Consumer Sentiment Index):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

□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

-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7p, 12p 하락
- 취업기회전망CSI는 88로 전월대비 6p 하락
- 물가수준전망CSI는 전월과 동일(137),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8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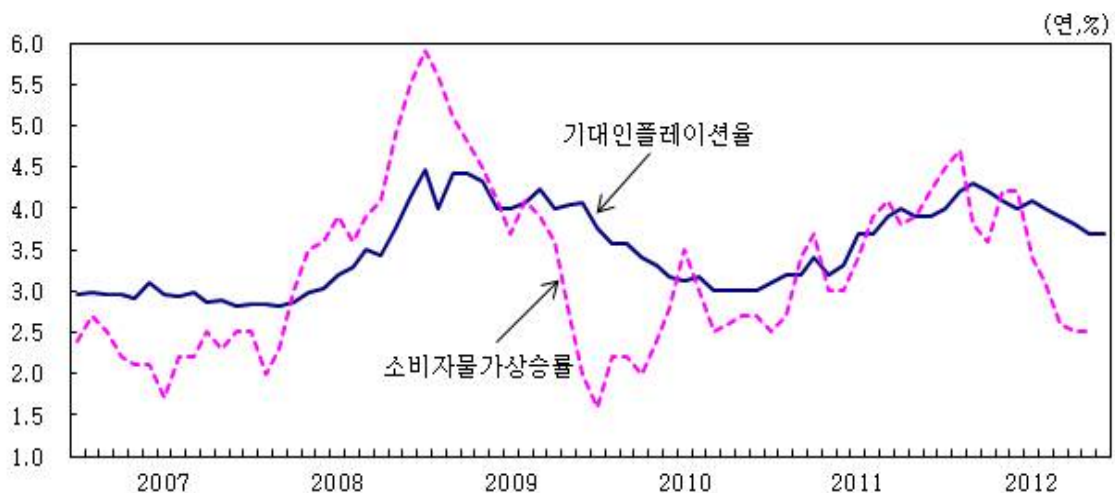
<경기, 취업기회,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>

구분	11.10월	11월	12월	12.1월	2월	3월	4월	5월(A)	6월(B)	(B-A)
현재경기판단CSI	66	75	68	65	68	70	77	81	74	(△7)
향후경기전망CSI	78	86	78	76	80	82	90	93	81	(△12)
취업기회전망CSI	90	91	82	83	88	90	92	94	88	(△6)
물가수준전망CSI	145	140	146	144	142	141	137	137	137	(-)
금리수준전망CSI	123	119	118	117	115	116	115	115	107	(△8)

□ 기대인플레이션

-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.7%로 전월과 동일
 -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3.0~4.0%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이 46.3%로 전월대비 3.7%p 증가한 반면 4.0%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은 35.6%로 3.2%p 감소

<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>



※ 본 자료는 6월 25일~29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·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안·중 FTA, 7월 3일 제주도 2차 협상

- 외교통상부는 **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2차 협상**이 7월 3~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**열린다고** 밝힘.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**한·중 FTA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**하고, 협상을 총괄하는 **무역협상위원회(TNC)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 설치 예정**. **상품·서비스·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도 논의**.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“FTA에서 제외할 품목과 비율, 제외 품목 중 농산물과 공산품 배치방법이 본격 논의될 것”이라고 말함.

자료: 농민신문(2012.6.29).

□ FTA 무역이득 환수법 개정안 환영

- (사)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**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이득 환수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 환영**...이 법률개정안은 FTA로 무역이득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이득의 일부를 환수해 **15년간 3조원의 기금을 조성**하고, **FTA로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인의 피해 지원**...FTA 무역이득 일부를 농어업인의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자료: 농민신문(2012.6.27).

□ 설탕수입 지난해보다 470% 증가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**수입서류 간소화 영향, 소비자들도 일반 마트에서 수입설탕 구매가 가능**해지면서(정부, 6.5일자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된 할당관세 추천요건 삭제) **설탕수입이 작년대비 470% 증가**. 수입설탕 증가로 현행 **설탕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변화**하고 있으며, **이 영향으로** 국내 제당 3사도 가격을 인하여 **물가안정에 기여**

자료: 농수축산신문(2012.6.26).

□ 서울시 ‘도매시장 조례 개정안’ 도마위

- 최근 서울시의회에 가락시장의 **시장도매인제 신설**(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공모를 거쳐 지정,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)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**‘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안’**이 **발의, 적합성 논란**과 함께 **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**...
▲(시장내 유통인 및 이해관계자) **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함께 합의가 전제**되어야함. 특히 개정 농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**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**이어서 **현실성이 결여**된 개정안이라는 설명. 도매시장법인 지정 규정 변경안에 대해서도 **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을 5~10년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**하고 있고, 지정기간 중 **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**하다는 분석...▲(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) “**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**”이라며 “도매법인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공모를 하는 방식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적합할지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”고 밝힘.

자료: 한국농어민신문(2012.6.28).

□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로 단축·농업인력 확보 도움

- 체류기간 동안 농장을 이동하지 않고 **성실하게 일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재취업을 우대**하는 내용을 담은 **‘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’ 제도**가 7월 2일부터 **시행**...농축어업 사업장의 경우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출국일 기준 **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**...▲(외국인 근로자) 한국어시험과 입국 전·후 취업교육 면제, ▲(고용주)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서 심사받는 ‘내국인 구인노력’ 면제.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숙련된 외국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,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방지 기대

자료: 농민신문(2012.6.25).

□ [기획] 가축분뇨법령 개정안, 쟁점은?

- 올해 5.3일 환경부가 가축분뇨 선진화 종합대책 및 개정안을 발표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예고
- (쟁점 1: 무허가·미신고 시설 폐쇄) ① 무허가,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신설, 미이행 시 폐쇄 명령 조치. ② 허가·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, 처리시설 기준 위반 시 3억 원이하의 과징금 부과
 - (축산 농가의 실상)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무허가·미신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축사 운영 불가
 - ※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, 무허가 축사 면적은 한우 25.6%, 낙농 42.6% 육계 41.6%, 오리 56.1% 등으로 조사
 - (축산업계 입장)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등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되 무조건적인 양성화가 어려운 만큼 보다 단계적인 법의 시행 요구
 - 축산업등록제 당시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돼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 허가 및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
- (쟁점 2: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) 처리가 가장 어려운 T-N(총질소)과 T-P(총인)의 규제를 대폭 강화
 - ※ T-N 방출량: (현행) 850ppm → (개정 후) 250ppm
 - ※ T-P 방출량: (현행) 200ppm → (개정 후) 100ppm
 - (축산업계 입장) 개정안을 시행하면 기존시설에 대한 처리공정 수정과 막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한 상황
 - ※ 대전충남양돈조합 사례: 172회 측정·분석한 결과 평균 623ppm을 나타내 현실과 괴리 커
 - 농가의 추가부담을 고려해 현재의 850ppm을 유지 필요.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

자료: 농수축산신문(2012.6.27)

※ 본 자료는 6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보리, 봄감자, 사과,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□ 보리

- '12년산 보리 전체 재배면적은 30,667ha로 '11년산보다 11,431ha(27.2%) 감소
- '12년산 겉·쌀보리 재배면적은 17,452ha로 '11년산보다 4,608ha(20.9%) 감소
 - 농협 수매가격이 동결되고 판로도 불안정하여 사료용 청보리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 면적 감소
 - 다만, 겉보리는 주산지인 전북에서 가공용 계약재배가 늘어나 소폭 증가
 - ※ 겉 보 리: ('11) 4,591 → ('12) 4,750ha (159ha, 3.5%)
 - ※ 쌀 보 리: ('11) 17,469 → ('12) 12,702ha(-4,767ha, -27.3%)
- '12년산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3,748ha로 '11년산보다 3,246ha(46.4%) 감소
 - 맥주보리는 대부분 맥주의 주정 원료로 사용되는데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협 수매가격 동결로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
 - ※ 맥주보리: ('11) 6,994 → ('12) 3,748ha (-3,246ha, -46.4%)
- '12년산 밀 재배면적은 9,467ha로 '11년산보다 3,577ha(27.4%) 감소
 - 지난해 밀 파종기에 잦은 비로 인해 파종시기를 놓쳐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 증가
 -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우리밀 소비감소 및 수매재고 증가로 생산자단체 자율감산에 따라 재배면적 감소
 - ※ 밀: ('11) 13,044 → ('12) 9,467ha (-3,577ha, -27.4%)

□ **봄감자**

○ '12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17,424ha로 '11년보다 1,702ha(8.9%) 감소

- '11년 종자감자 생육시기에 계속된 호우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여 정부보급종자 부족 및 종자가격 상승으로 면적 감소

※ 봄감자: ('11) 19,126 → ('12) 17,424ha(-1,702ha, -8.9%)

□ **사과**

○ '12년 사과 재배면적은 30,734ha로 '11년보다 433ha(1.4%) 감소

-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목이 증가하고 있으나,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유목식재 보다는 폐원이 증가하여 면적 감소

-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재배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사과 주산지인 경북은 감소하고 강원도는 소폭 증가

※ 사과: ('11) 31,167 → ('12) 30,734ha(-433ha, -1.4%)

□ **배**

○ '12년 배 재배면적은 14,353ha로 '11년보다 728ha(4.8%) 감소

- 타 과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데다,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매실 등 다른 과수재배로 전환하여 면적 감소

※ 배: ('11) 15,081 → ('12) 14,353ha(-728ha, -4.8%)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